

코로나 불황 이겨내는 완성차 업계... 내수판매 39% 폭증

(전월비)

5개 국산차브랜드 3월 판매 실적

현대 7만3810대 최다 판매
기아 예년 수준 판매량 회복
GM 주력모델 인기여전... 실적개선
삼성 SM6 TCe260 판매비중 증가
쌍용 생산정상화... 2월 판매량 2배

내수 자동차 시장이 불황을 빠르게 탈출하고 있다. 다만 신차 효과 감소 등으로 전년 수준까지 회복하는데는 실패했지만, 뚜렷한 성장세에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3월 국산차 브랜드 5개사 내수 판매량은 14만971대를 기록했다. 전달(10만1356대)보다 39.1% 증가한 수치다.

브랜드별로는 현대차가 7만3810대로 가장 많았고, 기아차가 5만1011대로 뒤를 이었다. 한국지엠(6149대), 르노삼성자동차(5695대), 쌍용자동차(4306대) 순이다.

특히 경영 위기에 놓인 쌍용차와 르노삼성 약진이 두드러졌다. 쌍용차는



기아 4세대 뉴 카니발.



한국지엠 트레일블레이저 RS 모델



르노삼성 '더 뉴 SM6'

전월(2673대)보다 2배 가까이 많은 판매량을 달성하는데 성공했다. 3월부터 협력사들의 부품 공급 재개와 함께 생산 라인이 정상가동한 덕분이다. 르노삼성도 전월(3900대)보다 46% 성장했다. QM6가 LPe 모델 인기에 힘입어 전달보다 56% 많은 3313대를 판매하며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현대차(5만2102대)와 기아차(3만7583대)도 각각 41.7%, 35.7% 더 많이 판매했다. 한국지엠(5098대)도 트레일블레이저(2130대)와 스파크(1693대) 등 인기에 힘입어 20.6%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단, 아직 코로나19 등 불황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모습이다. 내수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15만1025대)와 비교해 6.7%나 낮았다.

그나마 현대차와 기아차가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르노삼성(-52.6%)과 쌍용차(-37.2%), 한국지엠(-31.4%) 등 3사는 여전히 전년보다 크게 낮은 실적을 벗어나지 못했다.

르노삼성은 주력 모델인 SM6가 321대 판매에 머무르며 전년(1147대) 대비 30%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XM3(1698대)도 전년(5581대)로 신차 효과 감소가 두드러졌다.

쌍용차 역시 코란도(820대)가 전년(1562대) 대비 저조한 판매를 기록했고, 렉스턴 스포츠(1496대)도 전년(2582대) 수준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지엠도 콜라도(940대)가 전년(1456대)에 못미쳤고, 트랙스(1028대)도 전년(1818대)보다 43.5%나 떨어졌다. 스파크도 전월보다는 성장했지만, 전년(7255대)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그나마 각사는 완전한 회복세에 의미를 부여했다. 르노삼성은 신형 엔진을 장착한 SM6 TCe260 모델 판매량이 52% 비중으로 소비자에게 인정받고 있다고 평가하며, 전기차인 르노 조에가

구매 보조금 책정으로 102대 판매하며 본격적인 판매고를 올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쌍용차는 부품 공급 재개로 내수뿐 아니라 수출도 2846대로 전년(2485대)로 올라서는 등 정상화되고 있다며, 제품 개선 모델 및 전기차 등 신차 출시로 글로벌 판매 회복의지를 다졌다.

한국지엠도 트레일블레이저를 비롯해 트래버스와 콜라도 등 라인업이 출시 후 1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며 4월에는 가장 과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한국조선해양, 5660억 규모 선박 7척 수주

울산 현대중공업서 건조, 내년 인도
현재까지 연간 수주목표 37% 달성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총 5660억원 규모의 선박 7척을 수주했다.

1일 한국조선해양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아시아, 유럽 및 아프리카 소재 선사들과 총 7척의 선박 계약을 맺었다.

9만8000㎥ 초대형 에탄운반선(VLEC) 2척, 9만1000㎥급 초대형 LPG운반선 2척, 2만3000㎥급 소형 LPG운반선 1척, 5만톤 급 PC선 2척이다.

특히 이번에 수주한 에탄운반선은 올해 전 세계에서 처음 발주된 것으로, 길이 230m, 너비 36.6m, 높이 22.8m 규모다. 한국조선해양은 이 선박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7척의 초대형 에탄운반선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 2016년 인도한 초대형LPG선.

을 수주했다.

에탄운반선은 액화한 에탄(ethane)을 영하 94도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운반하는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LNG 운반선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요구된다.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 2022년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조선해양이 이번에도 수주한 초대형 LPG선 2척은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 2022년 하반기부터 인도될 예정이며, 소형 LPG선과 PC선은 각각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 2022년 하반기와 상반기부터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한국조선해양은 현재까지 68척 약 55억달러를 수주했다. 이는 연간 수주 목표인 149억달러 대비 37%를 달성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해운운임 상승 등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다양한 선종에 걸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풍부한 건조 경험과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그룹 아이오닉 이어 'EV6' 역대급 흥행

현대 아이오닉5 국내·유럽서 돌풍
기아 EV6 사전예약 첫날 2.1만대 돌파

현대차·기아가 친환경차 시장에서 기록갱신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는 차세대 전기차 아이오닉5로 국내는 물론 유럽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기아의 EV6는 사전계약부터 흥행신기록을 작성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 'EV6'가 국내 사전예약 첫 날 2만 1000대 이상 팔리며 브랜드 리런칭 이후 출시한 'K8'에 이어 다시 한 번 흥행신기록을 작성했다. 기아는 지난달 31일부터 공식 홈페이지와 전국 영업점을 통해 EV6 사전예약을 실시한 결과 첫 날 예약대수가 2만 1016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0년 3월 출시한 4세대 '쏘렌토'가 보유하고 있던 기아 SUV(스포츠퉂유틸리티차량) 모델 역대 최다



기아 EV6.

첫 날 사전계약대수 1만 8941대를 뛰어넘는 기록이다.

기아는 올해 브랜드 리런칭 이후 승용모델 K8의 첫날 사전계약 대수 1만 8015대로 역대 승용 모델 최고 기록을 세운 바 있다.

EV6의 모델별 구체적인 사전예약 비율은 스탠다드 10.3%, 롱 레인지 64.5%, GT-라인 20.6%, GT 4.6%로 롱 레인지와 GT-라인이 전체 대수의 85%를 차지했다.

/양성운 기자

현대차, 세종시에서 '셔클' 서비스 첫 개시

(인공지능 라이드폴링)

사전 모집 이용자 무료 시범운영

현대자동차가 세종시에서 수요응답형 커뮤니티 모빌리티 '셔클' 서비스를 시작한다.

현대차는 오는 4~10일 7일간 세종시 1생활권에서 사전에 모집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13일부터 풀라티 12대 규모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셔클은 인공지능 라이드폴링(합승) 서비스다. 이용자가 서비스 지역 내 어디서든 차량을 호출하면 대형합승차(풀라티 11인승 개조차)가 실시간 생성되는 최적 경로를 따라 운행한다.

/양성운 기자

승객이 셔클 앱으로 출발지와 도착지를 설정해 차량을 호출하고 좌석을 지정하면 앱이 가장 효율적인 위치에 있는 차량을 배차하는 동시에 승하차 지점을 안내한다. 승하차 지점은 셔클이 내부적으로 축적한 데이터에 기반해 대부분의 서비스 지역에서 출발지 및 도착지와 도보 5분 내외의 거리로 자동 생성된다.

차량 운행 중 신규 호출이 발생하면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최적 경로 생성' 기술을 통해 유사한 경로의 승객이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경로를 재구성하고 배차가 이뤄진다.

에쓰오일

스마트편의점 1·2호점 오픈

에쓰오일이 신세계그룹 편의점인 이마트24와 함께 주유소 부지 여건에 최적화된 컴팩트형 스마트편의점을 도입했다.

에쓰오일은 최근 광주광역시와 장미주유소와 경북 상주의 북상주IC주유소에 스마트편의점 1, 2호점을 개점했다고 1일 밝혔다.

주유소 맞춤형 편의점은 일반 편의점의 절반 크기인 약 23㎡ 정도 여유 공간만 있으면 적용할 수 있다.

주유고객이 선호하는 상품군 위주의 판매가 가능하며 셀프 결제시스템을 갖춰 유인 또는 무인 형태의 탄력적인 운영도 가능하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DLS, 越 택배업계 자동화 프로젝트 '첫 발'

베트남 우정총공사에 소팅시스템 공급

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이하 DLS)이 베트남 택배업계 1위인 베트남 우정총공사(이하 VN Post)의 5만㎡(1만 5125평) 규모 다낭 센터에 소팅 시스템을 공급했다고 1일 밝혔다.

DLS의 소팅 시스템 공급은 VN Post의 '베트남 전지역 센터 자동화 전환' 프로젝트의 첫 시범 사례다.

이를 통해 VN Post는 100% 수작업에 의지했던 프로세스를 자동화해 분류작업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고, 기존 대비 최대 10배 이상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DLS는 ▲작업자 동선 최소화 레이아웃 설계 ▲84개의 슈트를 갖춘 크로스벨트 소터 공급 ▲소터 관리 시스템(Sorter Management System, SMS) 등을 턴키 방식으로 일괄 공급했다.

특히 이번에 공급한 SMS는 Web 기반으로 구축돼 있어 원격으로 소포 이동 동선, 슈트의 최종 목적지와 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분류 계획을 효과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